

# 군산체력인증센터 '시민 건강지킴이' 인기

### 연령별 체력 측정... 운동처방·체력증진 프로그램 제시 군산소방서·군산교육청 등 각급 기관·단체 협약 체결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시민을 대상으로 과학적 체력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 6월 월명종합경기장 내 들어섰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남원에 이어 군산 시가 세 번째다.

연령별로 규정된 체력항목에 따라 체력을 측정하고 그에 맞는 운동처방 제과과 체력증진 교실 등이 운영된다.

체력측정 프로그램은 연령에 따라 청소년(만 13~18세), 성인(만 19~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체력측정이 끝나면 '인바디' 등 측정기로 정확한 현재 체격을 측정한 후 건강관

리의 개인별 체격과 체력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된다.

체력인증센터는 10월말 현재까지 군산소방서와 협약을 시작으로 영광중,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군산교육지원청, 서해환경 5개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체력인증센터는 개관 6개월만에 수천명이 이용할 만큼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2268명(청소년 1179명, 성인 726명, 노인 363명)을 측정했고 이 가운데 910명이 인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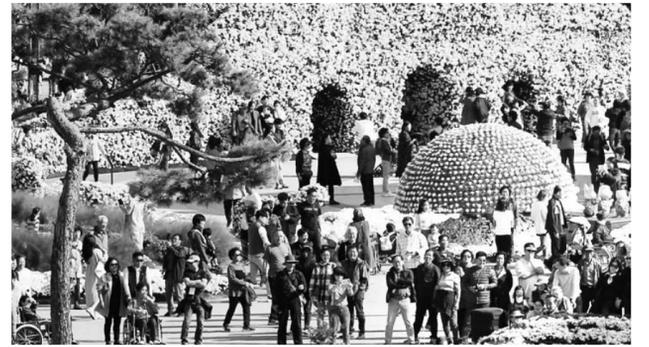
이런 추세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시한 신규센터 측정목표 인원 3500명 대비 64.8%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100세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위해 군산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체력측정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군산시 제공>

까지 건강을 유지해 행복한 군산을 만들 다. 이걸 수도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함평 국향대전 27만명 찾았다

### 역대 최다 관람객... 입장수입 10억원 '육박'

함평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사진)이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고 지난 3일 폐막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만 4000여명이 늘어난 27만 812명이 국향대전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축제기간을 현행 17일로 줄인 지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축제를 찾은 발걸음이 크게 증가하면서 군이 벌어들인 각종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입장수입은 역대 최대금액인 9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축제장 내 현장 판매액(농·특산물 등)도 13억 5000만원을 기록해 지난 2013년부터 7년 연속 1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입장수입의 경우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017년 8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4년 연속 입장수입으로만 흑자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뜨거운 흥행 열풍은 기존에 갖고 있던 각종 실적기록에도 영향을 미쳤다.

축제 10일차였던 지난달 27일에는 당일에만 3만 8000여 명이 몰리며 역대 1일 최다 입장객 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개막 11일 만에 지

난해 총 입장수입을 초과달성하며 10년 연속 입장수입 6억원을 돌파했다.

축제장 내 현장 판매액도 최근 10년 새 9차례(2012년 9억 4000만 원)나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일 진기록이 탄생했다.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향'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국향대전은 내용 자체로도 큰 호응을 받았다.

역사적 의미를 담은 실물 크기의 독립문과 백범 김구상, 평화의 소녀상 등은 그 웅장한 규모에 관광객들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주요 동선에 새롭게 조성된 핑크블리 꽃길과 자체 개발한 국화조경작품 역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무료야간개장과 미디어파사드는 연일 이어진 연장요청에 축제 2주차부터 주 2회씩 연장 운영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축제에 열린 함평예술공원은 이달 말(30일)까지 축제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 개방된다.

<함평=황윤희 기자 hwang@

## 익산시, 효 문화 도시 조성 박차

### 100세이상 어르신 초청 '무병장수' 경로잔치 개최

익산시가 효 문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지역의 100세 이상 어르신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장수어르신 경로잔치 '무병장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선 장수어르신과 가족,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했다.

시는 효 문화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아동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효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 파견돼 효 문화와 예절교육을 수행할 효행예절지도사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20명의 효행예절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올해 말까지 약 5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효 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효 사상에 대

## 익산시 100세 장수어르신 잔치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월 함라한옥 체험관에서 효행스테이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효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효의 가치를 지역사회 문화로 정착 시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정읍시,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마무리

정읍시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9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효응속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주거환경이 낙후됨에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보수하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비 2억58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1600만원을 들여 총 177가구에 지붕개량, 도배·장판·싱크대·창호시설

등 교체, 화장실·보일러 보수 등을 진행 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달 말까지 진행 중인 저소득 가구 보수공사를 완료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세대의 노후 불량 주택을 점검하고 보수가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겠다"며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건강생활 영위 'K-웰니스 도시' 인증패 받아

고창군은 한국웰니스산업협회 주관 'K-웰니스 도시' 힐링명상 분야에 선정돼 인증패를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의 웰니스 도시 선정은 전북지역에서 익산시를 시작으로 군단위에서는 1호 사례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최근 웰니스 산업은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2015~

2017년 사이 평균 6.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K-웰니스 도시는 유소년부터 실버세대까지 전 연령대가 웰니스 활동에 적합한 특화지역임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선운산, 은곡탐사르스지, 고창읍성 맹종죽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 동호해수욕장 모래찜질, 석정온천스파 등 도시인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하는 명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고창=김형호 기자 khj@

## 신안군, 어업용 포크레인 보급 사업 추진

### 비금 수치선착장 등 3곳서 시작... 고정식 인양기 대체

신안군은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고 어촌 현실에 활용도를 높인 어업용 포크레인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액 신안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데, 기존 정부 지원 고정식 어업용 인양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인 포크레인을 임차할 수 있다.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올해 비금 수치선착장 등 3곳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어선-수산물 인양작업과 해양 환경정화 사업, 태풍 등 재해 시 접근성이 낮은 지

역의 응급복구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163대의 어업용 인양기를 지역별 선착장마다 지원했으나 설치 후에는 섬이라는 특수 지리적 교통여건 때문에 고장 시 적기에 정비받지 못해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해양수산부의 사업 지침에는 설치지원 품목이 고정식 어업용 인양기뿐만 한정돼 어업 활동 변경이 제한되는 단점도 있었다.

또 육지보다 노동력의 한계가 있는 섬 지역에서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